

**論 文****Bi-Pb-Sr-Ca-Cu-O계 산화물 고온초전도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**

김 양 수 · 이 민 상\* · 이 민 호\* · 진 영 철

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금속공학과

\*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공동시험소

**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High  $T_c$  Oxide Superconductor,  
Bi-Pb-Sr-Ca-Cu-O System****Y.S. Kim, M.S. Lee\*, M.S. Lee\* and Y.C. Jin**

Dept. of Metallurgical Eng., Chonbuk National University, Chonju 560-756

\*Eng. Lab., College of Eng., Chonbuk National University, Chonju 560-756

**ABSTRACT**

The formation of high  $T_c$  phase is very sluggish and c parameter of unit cell of high  $T_c$  phase is about 37 Å.

High  $T_c$  oxide superconductor with a  $T_c$  above 100 K has been successfully prepared by solid state reaction method in BiSrCaCuO system by Pb adding.

The microstructure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high  $T_c$  phase has been investigated.

As compared with YBCO compound, the formation reaction of the high  $T_c$  requires long time heat treatment. It is due to the transformation from the low  $T_c$  phase to high  $T_c$  phase.

The sintering just below the melting point of the calcined powder mixture is effective on the formation of the high  $T_c$  phase in Pb-added BiSrCaCuO system.

The growth of the high  $T_c$  superconducting phase has a thin plate shape,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c parameter of 37 Å.

The formation of the high  $T_c$  phases is delayed by the excessive addition of Pb.

The lattice parameter(c) of the unit cell(both the low and high  $T_c$  phases) is increased with increase of Pb.

**I. 서 론**

초전도 현상은 1911년 K. Onnes가 액체 헬륨의 기화 온도인 4.2 K 부근에서 저항이 완전히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<sup>1)</sup>. 그 후 Bednorz와 Muller<sup>2),3)</sup>가 임계온도가 30 K인 La-Ba-Cu-O계를 보고한 이후 Barium을

Strontium으로 치환하여 임계온도를 40 K까지<sup>4~7)</sup>, Lanthanum을 Yttrium으로 치환하여 임계온도가 95 K를 기록하는 Y-Ba-Cu-O계의 고온초전도체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<sup>8,9)</sup>. 최근 100 K 이상인 Bi-Sr-Ca-Cu-O계가 보고<sup>10)</sup> 되었으며, 이는 화토류원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가격이 저렴하며 수분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. 그러나

이 고온산화물에는  $T_c$ 가 80 K인 저온초전도상과 100 K인 고온초전도상이 혼합되어 있다. 따라서, 이 계에서 많은 연구들은  $T_c$ 가 100 K 이상인 단상 고온초전도체의 제조에 집중하고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Bi-Sr-Ca-Cu-O계 초전도체의 생성과 Pb의 첨가로 저온초전도상을 줄이고 고온초전도상의 생성량을 높이는 안정된 최적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.

## 2. 실험방법

### 2.1. 시편제조

순도 99.9%의  $\text{Bi}_2\text{O}_3$ ,  $\text{PbO}$ ,  $\text{SrCO}_3$ ,  $\text{CaCO}_3$ ,  $\text{CuO}$  (Aldrich사 제조)를 사용하여 몰비를 1.7 : 0.3 : 2 : 2 : 3으로 청량한 후 알루미나 막자사발에 아세톤을 용매로 하여 혼합 분쇄한 다음 고온진공로에서 건조하였다. 하소는 공기중 810°C에서 10시간 하였고, 하소한 분말을 재분쇄한 후 7 ton/cm<sup>2</sup>의 압력으로 지름 15 mm, 두께 3 mm의 원판으로 성형하였다. 그후 성형체를 공기중 820°C에서 24~300시간 소결한 후 노냉하였다.

### 2.2. X-선회절시험

하소 및 소결시편의 결정구조 및 생성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RIGAKU X-Ray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X-선회절 분석을 하였다. 분석은 CU( $K_{\alpha}$ ) TARGET를 사용하여 2~40°의 2θ구간에서 조사하였다.

### 2.3. 전기저항측정

시편에 연결된 단자에 일정한 전류를 흘리는 상태에서 단자사이에 여기되는 전압차로 부터 저항을 측정하는 4단자법을 이용하였다. 단자와 시편 사이의 접촉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silver-paste에 의한 paint contact 방법으로 접촉시켰으며, 시편 내부의 불균일성이나 결함 등에 의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열전효과(thermoelectric effect)나 정류(rectification) 등으로 인한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편에 흐르는 전류의 방법을 바꾼 후 측정하여 평균함으로써 이러한 오차를 가능한 최소로 하였다.

### 2.4. 열분석

합성된 시료의 열처리조건이 정확한지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DTA분석을 수행하였다. 원료분말인  $\text{Bi}_2\text{O}_3$ ,  $\text{PbO}$ ,  $\text{CaCO}_3$ ,  $\text{SrCO}_3$ ,  $\text{CuO}$ 를 양이온의 비가 1.7 : 0.3 : 3 : 2 : 2 : 3이 되도록 섞어 건조시킨 후 1000°C까지 공

기중에서 10°C/min의 속도를 승온하여 열분석을 하였다.

### 2.5. 미세조직관찰

소결까지 행한 시편을 HITACHI X-650 형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20 kV로 소결시간에 따라서 조직을 관찰하였다.

## 3. 결과 및 고찰

Fig.1은 공기중에서 행한 DTA 결과로써 640°C와 850°C에서 endo peak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. 640°C에서 나타난 endo peak는 시료의 분해반응 및 소결에 의한 결과이며, 850°C에서 나타난 endo peak는 시료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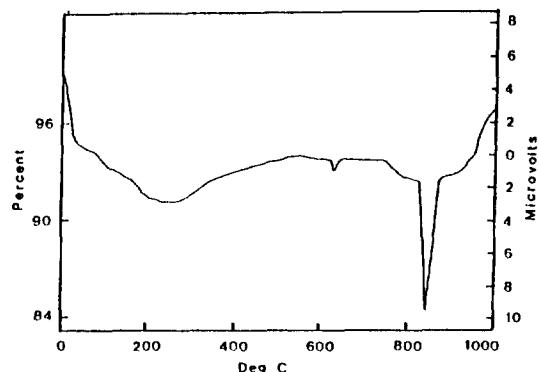


Fig.1. DTA curve of raw material in ai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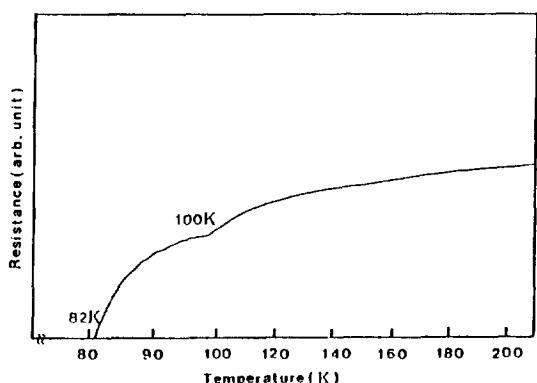


Fig.2. Temperature vs electrical resistance for the specimen Bi-Sr-Ca-Cu-O.

녹음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. 이러한 DTA 결과는 시료의 열처리조건이 타당함을 뒷받침하여 준다.

Bi-Sr-Ca-Cu-O계에서 Pb를 doping하면 고온초전도상( $T_c=107$  K)이 형성되는 반면 이 고온초전도상의 부피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00시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<sup>11)</sup>. 따라서 본 실험에서 행한 Pb를 첨가하지 않는 Bi-Sr-Ca-Cu-O의 결과는 Fig.2에서 알 수 있듯이 82 K와 100 K에서 2개의 저항 강하를 보여주고 있다. 본 시료에서의 저항이 0이 되는 온도는 82 K이다. 그러나 Pb를 첨가한 경우에는 100 K에서 저항 강하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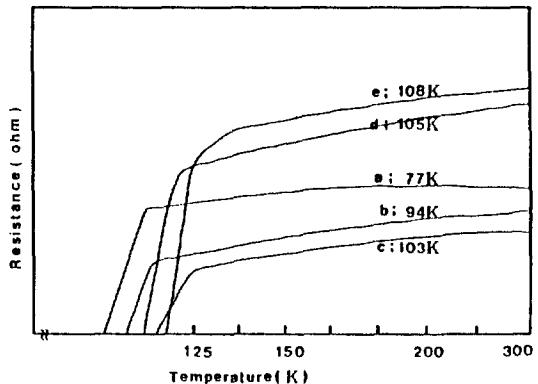


Fig. 3. Resistivity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the specimens sintered at 820°C (a) 24 hr, (b) 72 hr, (c) 170 hr, (d) 190 hr, (e) 210 h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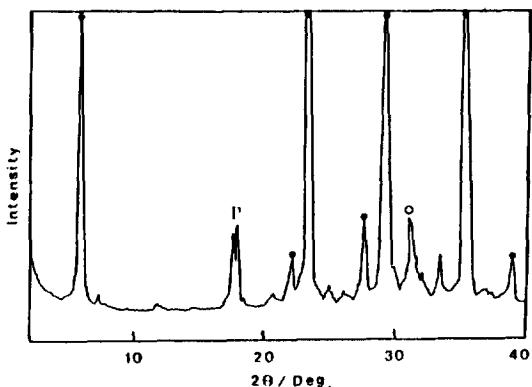


Fig. 4. X-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for the calcined powder treated at 810°C for 24 hr. (●, ○ and P denoted low  $T_c$  phase, high  $T_c$  phase,  $\text{PbCa}_2\text{O}_4$ , respectively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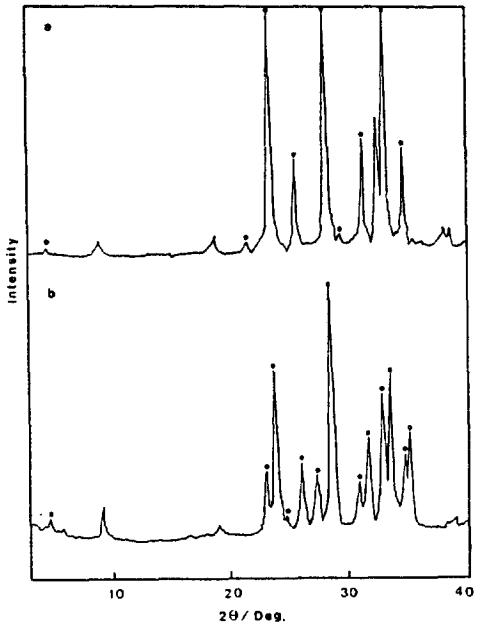


Fig. 5. X-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for the specimen sintered at 820°C (a) 24 hr, (b) 72 hr, (c) 170 hr, (d) 190 hr, (e) 210 h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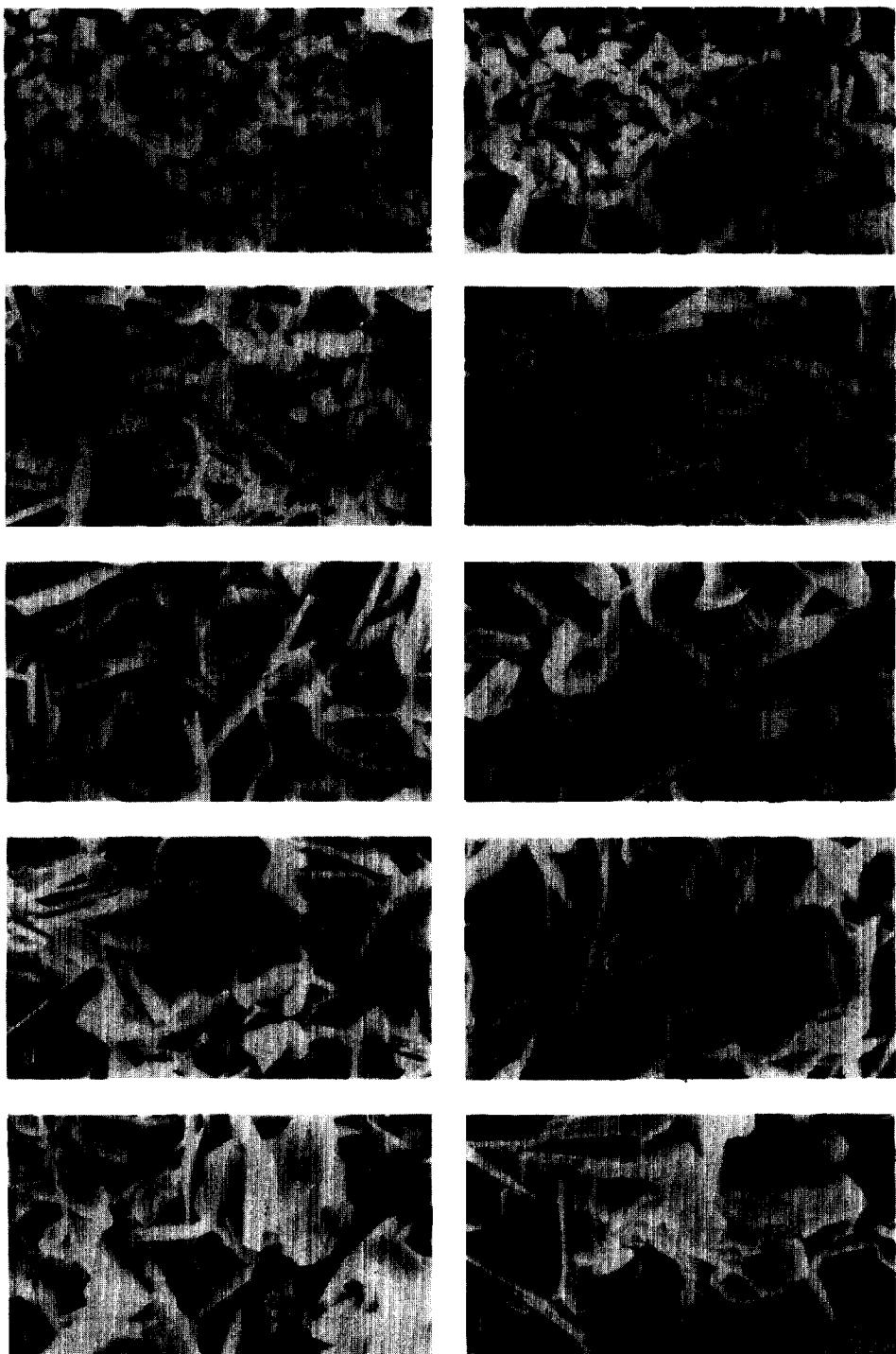


Photo.1. SEM micrographs for the specimen sintered at 820°C.

(a) 24 hr, (b) 48 hr, (c) 96 hr, (d) 120 hr, (e) 140 hr, (f) 150 hr, (g) 170 hr, (h) 190 hr,  
(i) 210 hr, (j) 300 hr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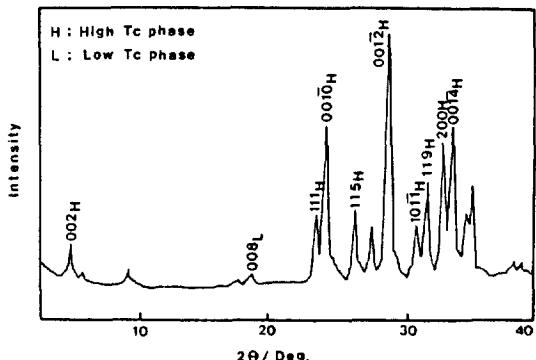


Fig. 6. X-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for the  $\text{Bi}_{1.7}\text{Pb}_{0.3}\text{Sr}_2\text{Ca}_2\text{Cu}_3\text{O}_y$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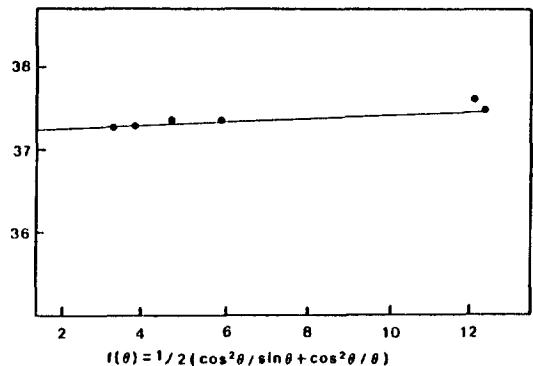


Fig. 7. Plot of the lattice parameter vs Nelson-Riley function of the  $\text{Bi}_{1.7}\text{Pb}_{0.3}\text{Sr}_2\text{Ca}_2\text{Cu}_3\text{O}_y$ .

사라지고, 820°C에서 72시간 소결한 후 94K의  $T_c$ 를 얻을 수 있었으며, Fig. 3에 나타나 있다.  $T_c$ 값은 소결 시간이 증가할수록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종적으로 210시간 소결한 후 108K(zero)의  $T_c$ 값을 얻을 수 있었다. 240시간 이후의 소결은 고온초전도상의 성질을 감퇴시킬 수 있었다. Fig. 4와 5는 하소한 분말과 소결시료의 X-선회절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. 공기중 810°C에서 24시간 하소한 경우에는 반응 생성은 다량의 저온초전도상( $T_c=80\text{ K}$ ), 소량의 고온초전도상, CuO,  $\text{Sr}_{3-x}\text{Ca}_x\text{Cu}_3\text{O}_y$ ,  $\text{PbCa}_2\text{O}_4$  등 매우 다양하다.

소결시간이 증가하면 시편 내에 차지하는 저온초전도상의 부피분율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고온초전도상의 부피분율은 증가한다. Fig. 5(a)에서 알 수 있듯이 소결시간이 24시간 정도의 소결 초기에는 X-선회절 결과가 하소 후의 X-선회절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. 이 회절선과 170시간 소결한 시편의 X-선회절 결과는 상당히 상이함을 보인다. 고온초전도상의 (002)회절선은  $2\theta=4.7^\circ$ 에서 나타나는데, 소결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회절선 강도의 증가와 더불어  $2\theta=5.8^\circ$  부근에서 나타나는 저온초전도상의 (002)회절선의 강도 저하로 고온초전도상의 부피분율이 소결시간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.

Photo. 1은 300시간까지 소결한 Pb가 첨가된 Bi-Sr-Ca-Cu-O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이다. 고온초전도상은 얇은 판상, 저온초전도상은 막대형임을 보여준다. Photo. 1(i)는 판상형 입자들의 성장이 촉진된 고온초전도상의 영역을 나타내며, 소결시간이 증가할수록 고온초전도상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X

-선회절 결과와 일치한다. Fig. 6은  $\text{Bi}_{1.7}\text{Pb}_{0.3}\text{Sr}_2\text{Ca}_2\text{Cu}_3\text{O}_y$ 의 210시간 소결한 X-선회절 결과이다. Tarascon 등<sup>12,13)</sup>의 보고에 의하면 저온초전도상과 고온초전도상의 조성은 Bi : Sr : Ca : Cu에 대하여 각각 2 : 2 : 1 : 2와 2 : 2 : 2 : 3이다. Pb를 첨가한 Bi-Sr-Ca-Cu-O계 초전도상들의 조성도 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고온초전도상의 생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.

본 실험에서 소결 초기에는 저온초전도상(조성비: 2 : 2 : 1 : 2)이 대량 존재하나, 소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초전도상은 서서히 감소하고 Ca나 Cu를 함유한 상들이 생성에 관여하여 고온초전도상(조성비: 2 : 2 : 2 : 3)의 생성이 촉진된다. 소결시간을 140시간 이상하여도 약간의 고온상이 존재할 뿐 Pb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와는 큰 차이가 없다. 따라서, 고온초전도상을 안정화하는 데는 Pb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. Pb가 첨가되지 않은 Bi-Sr-Ca-Cu-O계의 경우 80K급 초전도상의 제조는 어렵지 않으나 110K급 고온초전도상의 생성은 대단히 어렵다. 고온초전도상의 안정화에 대한 Pb의 영향은 고온초전도상의 열역학적 안정과 구성원소들의 확산속도 촉진 등을 통한 고온초전도상의 생성이 촉진된다. Fig. 7은  $\text{Bi}_{1.7}\text{Pb}_{0.3}\text{Sr}_2\text{Ca}_2\text{Cu}_3\text{O}_y$ 의 격자상수  $c$ 값을 plot한 것이다. 이으로부터 소결시간이 210시간일 때 단위정  $c$ 값이 37Å인 단일 고온초전도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.

#### 4. 결 론

본 연구에서는 Bi-Sr-Ca-Cu-O계 초전도체를 Pb를

첨가함으로써 고온상(100 K)의 생성량을 증가시키고, 안정한 고온초전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적 조건을 얻기 위하여  $\text{Bi}_2\text{O}_3$ ,  $\text{CaCO}_3$ ,  $\text{SrCO}_3$ ,  $\text{CuO}$  및  $\text{PbO}$ 를 혼합하여 하소하고, 시간의 변화에 따라 소결한 후 X-ray diffraction DTA, SEM 및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Pb를 첨가하지 않은 Bi-Sr-Ca-Cu-O계는 고온상(100 K)과 저온상(82 K)의 혼합상이나 Pb의 첨가로 고온상의 양이 증가하였다.
2. Pb를 첨가하여 소결시간을 장시간 행하였을 때 100 K 이상의 고온단일상을 얻을 수 있었고, 210 시간 소결하여  $T_c=108 \text{ K}$ 의 임계온도를 얻었다.
3. Pb의 첨가에 의하여 고온상은 팬상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, 단위정 c값은 37 Å 이었다.

### 5. 참고문헌

1. H.K. Onnes : Adad. Van Weetnschppen, 14, 113 (1911) 818.
2. J.G. Bednorz and K.A. Muller : Z. Phys., B 64, (1986) 189.
3. J.G. Bednorz, M. Takasige and K.A. Muller : E. Phys. Lett., 3 (1987) 379.
4. H. Yamagishi and Y. Yamamoto : Jpn. J. Appl. Phys., 26 (1987) L 123.
5. Z.X. Zhao et al. : Kexue Tong Bo 32 (1987) 522.
6. R.J. Cava et al. : Phys. Rev. Lett., 58 (1987) 405.
7. J.M. Tarascon et al. : Science, 235 (1987) 1373.
8. J.G. Bednorz, K.A. Muller and M. Takashige : Science, 236 (1987) 73.
9. M.K. Wu et al. : Phys. Rev. Lett., 58 (1987) 908.
10. H. Maeda, Y. Tanaka, M. Fukutomi and T. Asano : Jpn. J. Appl. Phys., 27 (1988) L 209.
11. C.W. Chu et al. : Science, 235 (1987) 567.
12. S. Iheda, H. Ichonose, T. Kimura, T. Matsumoto, H. Maeda, Y. Ishima and K. Ogawa : Jpn. J. Appl. Phys., 27 (1988) L 999.
13. J.M. Tarascon, Y. Lepage, P. Barboux, B. G. Bugley, L.H. Gerrn, W.R. McKinnon, M. Giroud and D.M. Hwang : Phys. Rev., B 37 (1987) 9783.